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지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1:3-14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516장 / 옴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통일찬송 285장)
	현신과 나눔 봉 헌 / 구 민 집사, 오정은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죽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읽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잠금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오정을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10:21-29
모세가 바로 앞에서 쫓겨나다.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을 절제하는 미디어 금식부터 시작해도 좋다. 나아가 *공정무역(fair trade)제품을 찾는 착한 소비운동에 동참하거나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면 더욱 좋겠다. 내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과의 소통과 연합에 힘쓰는 사순절 정신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21세기형

* Fair Trade 빈곤국의 수확물의 생산자에게
적취적 가격 대신 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며 그들의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지원하는 무역.



사순절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소망 없는 문화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이 상징하는 절제와 연대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사순절 정신을 구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 임성빈(장신대학교수) -

묵상에세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3/31) 마 21:1-11 예루살렘 입성
제 23일 (4/1 월) 마 21:12-17 성전에 가신 예수님
제 24일 (4/2 화) 마 21:23-27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제 25일 (4/3 수) 마 21:33-45 포도원 조각인의 비유
제 26일 (4/3 목) 마 22: 1- 4 혼인 잔치의 비유
제 27일 (4/4 금) 마 22:34-40 가장 큰 계명
제 28일 (4/5 토) 마 23: 1-28 예수님의 책망

사순절은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1.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다.
2.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3. 특별금식과 절제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다.

한 주간의 기도

"십자가의 피로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주간 버리세인과 같은 위선과 율법의 칼, 말과 혀의 칼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밖은 은혜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필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니 내가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코리서 12장 1절)

교회와사역

사순절과 한국교회

사순절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40시간 동안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이들이 경건하게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점차 교회가 정착되며 40일로 정해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다. 오늘날 인스턴트 문화가 신앙의 영역마저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엄격한 사순절의 전통은 우리에게 자못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세례를 받기 위해 40일간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1세기 문화의 두 축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문화이다. 두 문화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지만, 양자의 조합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상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 모든 것이 소비자들의 욕망과 결부되는, 소위 포스트모던적 소비 문화가 대중의 의식에 깊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제 저 하늘나라의 삶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매우 고리타분한 삶으로 취급 받고 있다. 우리 문화는 점점 초월의 영역을 잃어가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욕망은 날이 비대해지고 있다. 욕망에 기초한 소비사회에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처럼 대접받는다. 언제부터인가 너도나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이고 파괴적인 문화가 지속되어 이 세상은 인간성 상실, 생명 경시, 공동체의 실종, 환경 파괴로 이어져 비관적 미래를 맞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 문화를 회복하고 치유할 21세기형 사순절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사순절은 쾌락적이고 파괴적인 소비문화에 잠식되지 않고, 관성화된 문화습관에서 깨어나는 기간이다. 사순절 정신의 핵심은 경건과 절제라는 전통적인 미덕을 살리고, 공동체적인 **섬김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알렐루야'나 '대영광'같은 화려한 음악들을 피했다. 개인이 신앙을 점검하고 절제를 훈련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순절 정신을 문화로 통해서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외관이 달라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하다.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과 문화 전반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창조와 공휴, 연대와 책임의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도와 성경읽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집중은 우리를 나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삶으로 인도한다. 신앙인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수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에서 십자가사랑의 정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더욱 구체적 실천에 힘써야 할 때이다. 텔레비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3월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례하는 "현신의 달"이었습니다.
4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 **담사역 세미나** : "팀 사역이란?" 12주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인도: 김윤경 사모)
4. 다음 주일(4/7)에 정기제직회로 모입니다.
5. **사순절 새벽기도**가 계속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능력입니다.
6. **WOW 모임**(토/오전 11:00)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춘계심방** : 원하는 날짜를 교우사역 최선운 집사에게 알려주십시오.
8. 선교사 목사 부부 초청 선교/찬양집회와 여성 회복세미나(5/17-19)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9.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이달의 생일 축하 / 김성배(3.2) 김윤경(3.11) 홍은영(3.19) 장경미(3.22)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건강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3/31	4/7	4/14	4/21
	최선운집사	박진성집사	구민집사	정홍렬목사
금요일예배기도	4/5	4/12	4/19	4/28
	오정은집사	정홍렬목사	최내권집사	최선운집사
주일헌금위원	3/31	4/7	4/14	4/21
	구민집사/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3월	4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 요약) 공동체의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 고린도전서 9:1-14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포기하며 희생했지만,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를 계속 사랑했다. 음식을 탐하는 자, 율법을 파기하는 자, 사탄의 앞잡이라는 모함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끝까지 고려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언젠가 밝혀진다. 바울의 진심, 예수님의 희생은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다 밝힌다. 사람과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오해를 받아도 낙망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려면? / 고린도전서 11:3-14

헬라 여인들은 권위에 대한 순복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얻은 자매들도 머릿수건을 썼는 그 두 가지 이유는

질서(구별과 순서)를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세상과 벽을 쌓지 않고, 문화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품고 이웃에게 섬김의 손을 내미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려면? / 고린도전서 11:3-14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 헬라와 근동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 또는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리 수건이 갖는 의미는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한 순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일부 여자 성도가 머리 수건을 벗고 사회 문화적인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들의 행동은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예배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권면합니다. 더 이상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의 그렇게 말한 이유와 의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의 문화였던 여성들의 머리 수건 사용은 창조 질서의 틀 속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동등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과 순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가정이나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권위에 순복하겠다는 뜻으로 쓰는 머리 수건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의 문화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복음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굳이 세상 문화를 적대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세속 문화에 무조건 동화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세상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문화였던 머리 수건을 쓰라고 했던 겁니다. 굳이 당시의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 성경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 문화를 거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의 몇몇 여자 성도가 머리 수건을 쓰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교회의 형편 상, 이들의 행동과 주장이 덕이 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대개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만약 교회에 모인 여인들이 머리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교회가 비도덕적이고 반문화적인 집단이라고 낙인찍히면,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기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비록 자신의 개인적 주장과 행동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손상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머리 수건과 관련된 바울 사도의 권면에서 우리는 세상 문화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와 벽을 쌓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고립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화라면 수용하며,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내가 번사에 참되고 기뻐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기쁨, 화평, 나눔

March 31, 2019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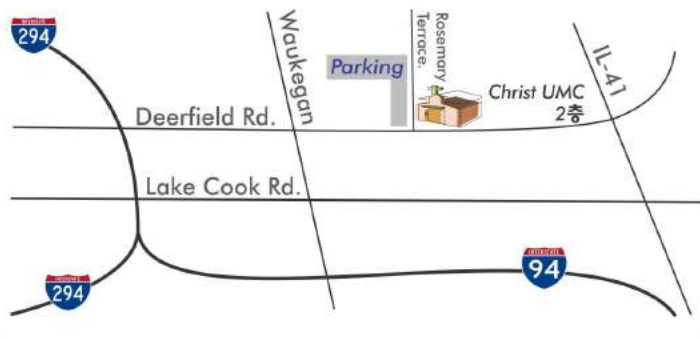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3월 31일

5-13호

소망의 달
선교주일 /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벧 4:13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